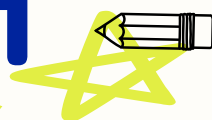




수능&내신 필수

고전 어휘&사자성어



도서
출판

사과꽃 향기

국어를 찾는 사람
들

고전 시가 사용 어휘 모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고전 단어	현 대 어	작품에 수록된 예문
1	가을	가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2	나리(물)	시내(물)	새파른 나리여히 [현] 새파란 냇가에
3	소반(小盤)	밥상	네 다리 소반 죽 한 그릇 [현] 네 다리 밥상 죽 한 그릇
4	바람	바다	바람에 살어리랏다 [현] 바다에 살겠노라
5	정지	부엌	메정지 가다가 드로라 [현]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듣는다
6	님비/곰비	앞/뒤	덕(德)으란 곰비에/복(福)으란 림비에 [현] 덕은 앞에/ 복은 뒤에
7	죽	모습	늑미 브를 즈술 다녀 [현] 남의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8	즈믄 / 온	천/백	즈믄 힐 장존하살 약이라 [현] 천 년을 오래 사살 약이라
9	꽃(꽃, 꽃)	꽃	대동강 건너편 고졸여 [현] 대동강 건너편 꽃을
10	백구(白鷗)	흰 갈매기 (자연친화적미지)	무심한 백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현] 욕심 없는 흰 갈매기는 내가 따르는 것인가 제가 따르는가.
11	이화(梨花)	배꽃 (계절 이미지(봄))	이화우 흐뿌릴 이별한 님 [현] 배꽃이 흩뿌릴 때 이별한 님
12	도화(桃花)	복숭아꽃 (무릉도원)	도화 뜬 말은 물에 [현] 복숭아꽃이 핀 맑은 물에
13	행화(杏花)	살구꽃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여있고 [현]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 있고
14	두견화	진달래꽃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현] 소나무 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15	부용(芙蓉)	연꽃	부용을 고갯는듯 [현] 연꽃을 꽃아 놓은 듯
16	황국화(黃菊花)	노란 국화꽃 (지조있는 신화)	갓 피운 황국화를 [현] 갓 피운 노란 국화를
17	해오라비, 해오라기	백로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 [현] 검은 까마귀가 백로가 되도록
18	뫼	산/수라(궁중용어)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현]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19	뫼	들	조석 뫼 네와 고티 세시는가 [현] 아침 저녁은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20	메	밥	저 뫼이 권거이고 [현] 저 들이 그곳인가
21	하암(鄉閭)	시골에 살아 어리석은 사람	제사에 오르면 진메이니 [현] 제사에 오르면 진메라 하니
22	하암(鄉閭)	시골에 살아 어리석은 사람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인가 하노라 [현] 어리석고 시골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23	소(沼)/지당	연못	기쁜 소희 몽갈 고기 뛰노느다 [현] 깊은 연못에 몽갈 고기 뛰노느다.
24	청악립(靑簫笠) 녹사의(綠蓑衣)	삿갓/도롱이	청악립도 써 잇노라, 녹사의 가져오라. [현] 삿갓은 썼는데 비옷은 가져오라.
25	물 / 불 / 풀	물/불/풀	풀은 푸르느 듯 누르느니 [현] 풀은 푸르는 듯하다 바로 누렇게 되니 물 7톤 얼굴이 [현] 물같은 얼굴이
26	시비(柴扉)	사립문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추즈리 뉘 이시리 - 신희의 시조
27	실술(蟋蟀)	귀뚜라미 (가을, 그리움)	님 글인 상사몽이 실술이 녀시되야 [현] 님 그리는 꿈이 귀뚜라미 녀이~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현] 귀뚜라미 상에 울 때
28	존디	위험한 곳	존디를 드디올세라 [현] 위험한 곳에 가실까봐 걱정된다.
29	사창/옥창 규방(閨房)	여인의방	사창 여원 춤을 슬쓰리도 [현] 여인의 방에 잠을 살쓸이도~
30	모침	초가(의 처마)	모침 비친 히를 [현]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30	해동/계림(鷄林)	우리나라	해동 육룡이 누르샤 [현] 우리나라에 6마리의 용이 날으셔서



고전 시가 사용 어휘 모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31	여름	열매	꽃 도쿄 여름하나니 [현]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32	녀름	여름	긴 녀름 강춘애 일마다 유심하도다[현]긴 여름 강춘애 일마다 그윽하다.
33	벽계수(碧溪水)	푸른 시내(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황진이의 시조
34	그름(가름)	강	그름이 푸르니 새 더욱 희오[현]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35	싸	땅	하늘과 싸과는 [현]하늘과 땅은
36	별	벼랑	아으 별해 부른 빛 다호라 [현]아,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37	관산	국경, 관문, 요새	사호멧 머리 관산 북녜고 잇느니 [현] 싸움 말이 관산 북쪽에 있으니
38	жат	성	жат 안 풀와 나모썬 [현] 성 안에 풀과 나무뿐
39	곳(古)	끝	곳 업슨 디는 나뭇니핀 [현] 끝 없이 지는 나뭇잎은
40	다히	쪽, 편	무등산하 활기 뫼희 동다히로 [현] 무등산 줄기 산이 동쪽으로
41	우희	전에(시간) 위에(공간)	천세 우희 미리 정하산 [현] 천년 전에 미리 정하산 대문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현]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42	제	때	이 몸 삼기실 제 [현]이 몸이 생겼을 때(태어났을 때)
43	촉(燭)	촛불	촉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현]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44	녹양(綠楊) 양류(楊柳)	버드나무	녹양방초는 세무(細雨)중에 프르도다 [현]푸른 버드나무는 가람비 사이에서 푸르구나
45	연하(煙霞) 금수(錦繡)	안개와 노을 비단(경치)	연하 일취는 금수를 재밋는 [현]안개와 노을과 햇살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46	연하고질 (=천석고황)	아름다운 경치	천석고황,연하고질을 깊은 병을 만들어 [현]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병이 생겨서
47	혜음 (혜, 혜가림)	생각, 시름, 걱정	단표누항에 흐튼 혜음 아니 하니 [현]가난한 살림살이에 허튼 생각 아니 하니
48	남여	가마	남여를 비야 타고[현]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49	황운(黃雲)	누런 구름 (누런 곡식 비유)	황운은 또 엇지 만경에 편 거괴요 [현]누런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진 것이요.
50	건곤(乾坤)	하늘과 땅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현]하늘과 땅이 막혀 흰 눈이~
51	어엿은	불쌍한	어엿은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구나.
52	놀애(놀이)	날개	항 드딘 놀애로 님의 오시[현]항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53	삼춘, 삼하, 삼추, 삼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삼춘화류 호시절에 [현]한창인 봄의 좋은 계절에
54	시앗	첩	여우 같은 시앗년 [현]여우 같은 첩년
55	침선	바느질	침선 돕는 유를 각각 [현]바느질을 돕는 부류를 각각
56	수품(手品)	솜씨	수품제도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일우리오 [현]솜씨에 대한 제도를 나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57	질삼보	길쌈하던 베	여히므로 질삼보 버리시고 [현]이별보다는 길쌈 베를 버리고서라도
58	홍상(紅裳)	붉은치마	홍상을 녀미초고 [현]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59	홍안(紅顔)	(젊은 여성의얼굴)	박명하 홍안이야 날 가트니 또 이실가. [현]복이 없이 문명이 박한 사람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60	얼굴	모습, 형체	내 얼굴 이 거동이[현]내 모습과 이 행동이
61	노	얼굴	반기시는 노비치 네와[현] 반기는 낮빛이 예전과~
62	무술(무을)	마을	무술을 아나 흐르느니 [현]마을을 안고 흐르니
63	파람	휘파람	긴 파람 홀리 불 제 [현]긴 휘파람 홀려 불 때
64	무음	웃음	내 무음이 정 무음가 [현]내 웃음이 진짜 웃음인가
65	홍진(紅塵)	속세	홍진에 못친 분네 [현]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여
66	소리	소리	소르 를 높이 하야 [현]소리를 높게 하여



고전 시가 사용 어휘 모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67	나조	저녁	나조에는 조수하세 [현]밤에는 닛시를 하자.
68	하루	하루	하루도 열두 때 한달도 서른 날[현]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69	조화옹(造化翁)	조물주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출사[현]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70	계집, 거집	여자, 아내	계집은 조희를 그려 [현]아내는 종이에 그려서
71	이러야	아양	이러야 교태야 어즈러이 구똥똥디[현]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어서
72	하처(새처)	숙소	하처라고 차자가니[현]숙소라고 찾아 가니
73	마(긋은 비)	장마	여름날 길고길제 긋은비는 므스 일고
74	세우(細雨)	가는 비(봄비)	세우중에[현]가람이가 내리는 중에
75	접동, 자규, 소쩍새, 귀촉도 적다정조	한의 이미지	접동 너는 어이 무지논다. [현]접동새야 너는 어찌 무느냐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아라마는 [현]한 가지에 얹힌 봄 뜻을 소쩍새야 알까마는
76	친나비	원숭이	친나비 파람 불 제[현]원숭이가 휘파람 불 때
77	소부허유	은사의 대명사 (속세를 잊고자 하는 사람들)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 - '유산가' cf) 요 임금이 허유에게 임금의 자리를 넘겨주려 하자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영수에서 귀를 씻었고, 소부는 이를 보고 영수의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함
78	백이숙제	절개의 대명사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성삼문 시조 cf) 주나라의 무왕에 반대하여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 먹다 굶어 죽은 은나라의 충신
79	꽃(꽃)	꽃	대동강 건너편 고졸여[현]대동강 건너편 꽃을
80	천석고황 (泉石膏肓)	(자연을 사랑하는 병)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터 므슴하료 [현]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리오.
81	일편명월 (一片明月)	밝은 달 (자연친화)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
82	누항(陋巷)	누추한 거리	누항 깃픈 곳의 초막을 지어 두고 [현]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83	단사표음 (單食瓢飮)	도시락 하나와 표주박의 물 (안빈낙도)	단사표음을 이도 족히 너기로라 [현]안빈낙도도 족히 여기노라
84	박주산채 (薄酒山菜)	맛이 변변하지 못한 술과 산나물 안빈낙도 (安貧樂道)	아히야, 박주산채=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현]아이야, 변변치 못한 술이라도 없다 하지말고 내어 와라
85	금서(琴書)	거문고와 책	아히 금서를 다스려라 나쁜 희를 보내리라 - 정철의 시조
86	즈믄 / 몬	천(1000)/백(100)	즈믄 힐 장존하살 약이라 [현]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87	이리	아양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하똥똥디[현]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던지.



고전 시가 사용 어휘 모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고전 단어	현 대 어	작품에 수록된 예문
88	선희다	서운하다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희면 아니올세라
89	녀다 (니다, 녀다)	살다, 지내다, 가다	니를 훈디 녀가져 원을 비습노이다.
90	얼다	정을 나누다	어룬 님 오신 밤이어든 구뵤구뵤 퍼리라
91	괴다	사랑하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훈가마는
92	버기다	우기다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93	늦기다	흐느끼다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94	이긋하다	비슷하다	산 접동새 난 이긋하요이다
95	다호라	갈구나	유월 보로매 아으 별헤 부훈 빗 다호라
96	허다	켜다	이월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스불 다호라
97	어엿브다	불쌍하다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98	식어디여	사라지다, 죽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99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100	색무다	꺼리다	공명도 날 색우고, 부귀도 날 색무니
101	무룩다(몰아)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102	여희다(여희다)	이별하다, 헤어지다	여희여슈물 슬후니 새 무스를 놀래느다
103	똥다(도타)	중다	꽃 도쿄 여름 하느니
104	중다(조타)	깨끗하다	언의 뉘 이 조흔 쏫을 알리 잇다 흐리오
105	현사하다	야단스럽다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출사
106	어리다	어리석다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107	슬허하다	슬퍼하다	스름이 저 시만 못하물 못니 슬허하노라
108	외다	그르다, 잘못되다	슬프거나 즐거우나 똥다 하나 외다 하나
109	하다	많다	노래삼긴 스람 시름도 하도할사
110	하다	하다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름 조로 훈다.
111	잘다	짧다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112	수이	쉽게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람마라
113	굿다	끊어지다	노픈 듯 느즌 듯 그스 듯 닛는 듯
114	닛다	이어지다	노픈 듯 느즌 듯 그스 듯 닛는 듯
115	오던된	방정맞은	오던된 계성의 춤은 엇디 씨똥던고
116	고두	머리를 조아리다	성진이 고두하고 울며 가로되
117	오마 하다 (오다하다)	오다하다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118	가시다	없어지다	님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19	미다	미워하다	미리도 괴리도 업시
120	슬타	싫다	내 빈천을 슬히 녀겨
121	슬미다	미워하고 싫어하다	귀에 관현이 슬미니, 풍경이 못 슬미니
122	물색없다	눈치없다	본관은 물색없이
123	낫브다	부족하다	아름이 낫브거니 나조혜라 유여하랴
124	부이다	재촉하다	남여를 부이야 타고 술아래 구쁜 길로
125	젓다 (저어하다)	두려워하다	하늘도 젓디 아녀 웃독이 쏫는 거시
126	뵤다	비다	주머니 뵤엿거든
127	돌다(달다)	달리다	돌논듯 따로논 듯
128	가음열다	풍성하다	건곤도 가음열사 간데마다 경이로다
129	버히다	자르다, 베다	원앙금 버혀내어 님의 옷 만들고자
130	선희다	서운하다	선희면 아니 올세라
131	스 오다	시기하다	까마귀 흰비출 스 올세라
132	색무다	꺼리다	공명도 날 색우고, 부귀도 날 색무니



고전 시가 사용 어휘 모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고전 어휘	현 대 어	작품에 수록된 예문
149	~ㄴ세라	~할까 두렵다	잡스와 두어리마는 전후면 아니올세라
150	~손디	~에게	뒤손디 타 나판디 양지조차 못손다
151	~도곤/~라와 / ~에	~보다	누고서 삼공도곤 닛다 후더니 만슬이 이만후라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무니노라
152	~ㄴ니와	물론이거니와	각시님 돌이야 ㄴ니와 구쥔 비나 되쇼셔
153	~하/~곰	~이여/이시여	돌하 노피곰 도드샤
154	~곰	강세접미사(~쑈)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155	~고져	~하고자	출하리 한강의 목맥에 다히고져
156	~다려(드려)	~에게	눌드려 물을런고
157	~무희	시간 + ~무희 ~전에 공간 + ~무희 ~위에	천세 무희 미리 정후산 한수 북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무희 치드라 안자
158	~다히(~다이)	~의, ~쪽	무등산 후 활기 외희 동다히로 버더 이셔
159	~디	~곳(장소)	즌 디를 드디올세라 - 정읍사
160	~제	~때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161	~다호라	~같구나	유월 보로매 아으 별헤 복흔 빗 다호라
	고전 어휘	현 대 어	작품에 수록된 예문
162	츠로	자주	구름 빗치 조타 후나 겹기를 츠로 후다
163	모쳐라	마침	모쳐라 밤일미망정 힘허 낮이런들 눈 우일 번 후괘라
164	고터	다시	염냥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165	저근덧, 건듯	문득	저근덧 싱각마라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을 헤터 내니
166	슬ㄴ장	실컷	무음의 머근 말슴 슬ㄴ장 습자 후니
167	후마(하마)	이미, 벌써	엇그제 저멋더니 후마 어이 다 놀거니
168	빗기(비겨)	비스듬히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 디 바라보니
169	하	몹시	시절이 하 수상하니
170	우러곰	우러러, 울어울어	우러곰 좇니노이다
171	후리쳐	팽겨쳐	후리쳐 던져두자
172	대저	무릇, 대체로	대저 효는 인륜의 근본이다.
173	므스(므슴)	무엇, 무슨	므스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가
174	바히	전혀, 아주	나모도 둘도 바히 없슨
175	고터(고쳐)	다시	다리고 고쳐 다려



수능 기출 사자 성어

[ㄱ]

苛斂誅求 (가렴주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가정맹어호)
佳人薄命 (가인박명)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일찍 죽는 일이 많음
刻骨痛恨 (각골통한)	뼈에 새길 정도로 아프고 한스럽게 생각한다는 뜻.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잊을 수 없는 원통함을 이룸
肝膽相照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 꺼내 보인다는 뜻으로 친한 친구를 이룸(=죽마고우, 관포지교, 금란지교, 막역지우, 지음 등)
甘言利說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를 이르는 말
甘吞苦吐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甲論乙駁 (갑론을박)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
改過遷善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舉案齊眉 (거안제미)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 남편을 공경함을 이르는 말
隔世之感 (격세지감)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牽強附會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見蚊拔劍 (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
結者解之 (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를 일을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結草報恩 (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輕舉妄動 (경거망동)	경솔하여 생각없이 가볍게 행동함을 뜻함
高臺廣室 (고대광실)	매우 크고 좋은 집
孤立無援 (고립무원)	고립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됨
姑息之計 (고식지계)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위해 임시로 처리하려는 계략
苦盡甘來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음을 이르는 말
公平無私 (공평무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誇大妄想 (과대망상)	사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
刮目相對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口蜜腹劍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九死一生 (구사일생)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九牛一毛 (구우일모)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
群鷄一鶴 (군계일학)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란 뜻
窮餘之策 (궁여지책)	막다른 골목에서 그 국면을 타개하려고 생각다 못해 짜낸 꾀
權不十年 (권불십년)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近墨者黑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말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이르는 말
金科玉條 (금과옥조)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
金石盟約 (금석맹약)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약속
今昔之感 (금석지감)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생기는 느낌
氣高萬丈 (기고만장)	펄펄 뿜 만큼 크게 성이남. 또는 일이 뜻대로 되어 나가 썩썩한 기운이 대단히 뻗침
起死回生 (기사회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騎虎之勢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

[ㄴ]

內憂外患 (내우외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勞心焦思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能小能大 (능소능대)	모든 일에 두루 능함



수능 기출 사자 성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ㄷ]

多岐亡羊 (다기망양)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알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多多益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 수록 더욱 좋음
大驚失色 (대경失色)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이르는 말
大器晚成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
獨守空房 (독수공방)	'빈 방에서 혼자 잠'을 이르는 말로 부부가 별거하여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지냄을 뜻함
獨也青青 (독야청청)	자신이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同價紅裳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란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
東問西答 (동문서답)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의미로 물음과는 전혀 상관 없는 엉뚱한 대답을 말하는 것
同病相憐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함을 뜻함
東奔西走 (동분서주)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의미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同床異夢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
杜門不出 (두문불출)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사회나 관직에 나가지 않음을 이르는 말

[ㄹ]

馬耳東風 (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莫無可奈 (막무가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하려는 태도)
莫逆之友 (막역지우)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
晚時之歎 (만시지탄)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한다는 뜻
亡羊之歎 (망양지탄)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麥秀之嘆 (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말로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한 데서 유래함
面從腹背 (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하는 모습을 이르는 말
滅私奉公 (멸사봉공)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쓰는 것
明若觀火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 같이 밝에 보인다는 뜻으로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을 이르는 말
命在頃刻 (명재경각)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의미로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는 말
目不忍見 (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음
無爲徒食 (무위도식)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음
物我一體 (물아일체)	바깥 사물과 나,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이르는 말

[부,시]

半信半疑 (반신반의)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
傍若無人 (방약무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함.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百年大計 (백년대계)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
百年河清 (백년하청)	중국의 황하강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
伯仲之勢 (백중지세)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용호상박, 막상막하)
百尺竿頭 (백척간두)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감'을 이르는 말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말
附和雷同 (부화뇌동)	우리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좇대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짐임(=친구따라 강남 간다)
憤氣撐天 (분기탱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悲憤慷慨 (비분강개)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
髀肉之歎 (비육지탄)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四顧無親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다'는 뜻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四面楚歌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수능 기출 사자 성어

[스,이]

死生決斷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
事必歸正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殺身成仁 (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三顧草廬 (삼고초려)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유비가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
三十六計 (삼십육계)	형편이 불리할 때 달아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桑田碧海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塞翁之馬 (새옹지마)	인생의吉凶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
生死岐路 (생사기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
先見之明 (선견지명)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先公後私 (선공후사)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세우는 것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움
雪上加霜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진퇴양난, 진퇴유곡, 사면초가)
說往說來 (설왕설래)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數間茅屋 (수간모옥)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
首丘初心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쪽으로 든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手不釋卷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음
袖手傍觀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의미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룸
守株待兔 (수주대토)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脣亡齒寒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의미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위태롭다는 말
是是非非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한다는 말로 사리를 공정하게 판단함을 이르는 말
識字憂患 (식자우환)	아는 것이 병이란 뜻으로 도리를 알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불리하게 되었음을 이룸
十伐之木 (십벌지목)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뜻으로 꾸준히 시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
我田引水 (아전인수)	나의 눈에 물을 끌어 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
安分知足 (안분지족)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편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욕심 없는 소박함을 의미함
安貧樂道 (안빈낙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眼下無人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暗中摸索 (암중모색)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兩者擇一 (양자택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語不成說 (어불성설)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易地思之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여 봄
緣木求魚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五里霧中 (오리무중)	'오 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말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뜻함
寤寐不忘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함
吾不關焉 (오불관연)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
吳越同舟 (오월동주)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하는 처지에 이를 때 쓰는 말
溫故知新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앎
臥薪嘗膽 (와신상담)	불편한 지푸라기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의미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 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참는다는 말
搖之不動 (요지부동)	흔들어도 꿈쩍하지 아니함
愚公移山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雨後竹筍 (우후죽순)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有口無言 (유구무언)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類類相從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거나 함께 함
唯一無二 (유일무이)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수능 기출 사자 성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오, 자]

異口同聲 (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以卵投石 (이란투석)	달걀로 돌을 친다는 뜻으로,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以實直告 (이실직고)	사실 그대로 고함
以心傳心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以熱治熱 (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림. 열이 날 때에 땀을 낸다든지, 더위를 뜨거운 차를 마셔 이긴다든지 힘은 힘으로 대응한다는 의미
已往之事 (이왕지사)	이미 지나간 일
因果應報 (인과응보)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一舉兩得 (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一口二言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一罰百戒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을 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보기를 보여 준다는 의미
一場春夢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란 뜻으로 헛된 부귀영화는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말
一進一退 (일진일퇴)	한 번 앞으로 나아갔다가 한 번 뒤로 물러섰다 함
一觸即發 (일촉즉발)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
一片丹心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
隨機應變 (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自家撞着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됨
自強不息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
自激之心 (자격지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自繩自縛 (자승자박)	자기의 줄로 자기의 몸을 묶어 묶는다는 의미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옳혀 곤란한 처지에 이름
自業自得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自中之亂 (자중지란)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
自暴自棄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自畫自讚 (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
長幼有序 (장유유서)	오륜의 하나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함을 이름
賊反荷杖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지팡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赤手空拳 (적수공권)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前人未踏 (전인미답)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 본 일이 없음
戰戰兢兢 (전전긍긍)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輾轉反側 (전전반측)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轉禍爲福 (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이름
切磋琢磨 (절차탁마)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切齒腐心 (절치부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는 뜻으로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漸入佳境 (점입가경)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물결이 더욱 꿀볼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朝變夕改 (조변석개)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朝三暮四 (조삼모사)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左顧右盼 (좌고우연)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坐不安席 (좌불안석)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衆口難防 (중구난방)	몹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重言復言 (중언부언)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
知己之友 (지기지우)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知人之鑑 (지인지감)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
進退兩難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수능 기출 사자 성어

[大~ㅎ]으로

千慮一失 (천려일실)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도 여러 생각 가운데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千辛萬苦 (천신만고)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
天壤之差 (천양지차)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天佑神助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千載一遇 (천재일우)	천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千村萬落 (천촌만락)	수많은 촌락
青天霹靂 (청천벽력)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란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青出於藍 (청출어람)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이룸
草綠同色 (초록동색)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이룸
針小棒大 (침소봉대)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他山之石 (타산지석)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남의 행동도 자신의 수양에 도움이 됨
卓上空論 (탁상공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
兔死狗烹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없게 되어 주인에게 먹히게 된다는 뜻(필요할 때만 대접함을 이룸)
表裏不同 (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風飛電散 (풍비박산)	바람이 불어 우박이 이리저리 흩어진다는 뜻으로 엉망으로 깨어져 흩어져 버림
風樹之嘆 (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風月主人 (풍월주인)	맑은 바람과 맑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風餐露宿 (풍찬노숙)	경치가 좋은 자연에서 욕심없이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緘口無言 (함구무언)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
咸興差使 (함흥차사)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
虛張聲勢 (허장성세)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子子單身 (혈혈단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兄友弟恭 (형우제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 깊게 지냄을 이르는 말
狐假虎威 (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
糊口之策 (호구지책)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
魂飛魄散 (혼비백산)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畫龍點睛 (화룡점정)	무슨 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
換骨奪胎 (환골탈태)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 더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會者定離 (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불교의 진리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
橫說豎說 (횡설수설)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궁저러궁 지껄임
後生可畏 (후생가외)	젊은 후학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에서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함
厚顏無恥 (후안무치)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後悔莫及 (후회막급)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 없음
興盡悲來 (흥진비래)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